

중도입국 학생의 언어적응에 관한 사례연구

김송설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번역학과)

부산외국어대학교 다문화연구소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학회

www.kci.go.kr

중도입국 학생의 언어적응에 관한 사례연구

김송설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번역학과)

《목 차》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 1.2 선행연구
2. 연구 질문
 - 2.1 연구 방법
 - 2.2 연구 대상과 범위
3. 사례분석
 - 3.1 언어적응과정에서의 또래와의 관계
 - 3.2 언어적응과정에서의 교사와의 관계
 - 3.3 언어적응과정에서의 가족과의 관계
4. 결론

<Abstract>

Kim Song Seol. 2019. 08. 05. **A Study on the Language Adaptation of Middle-Term Entrance Students**,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4, 37-66.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middle-aged teenagers, their peers, teachers and parents in the course of their school life adaptation? We will look at how the resulting patterns of behavior appear, and how it affects school life adaptation.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ey words] immigrant adolescents, cultural identity, immigrated children, multicultural families, Language adaptation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글로벌 가속화에 따라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이주민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새로운 이주 형태로 떠오르고 있는 중도입국 학생을 대상으로 언어적응과정에서의 또래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이는 학교생활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한국사회도 빠르게 다문화로의 전환과 맞물려 다문화학생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중도입국 학생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재단인 무지개청소년센터¹⁾는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 중도입국청소년이란 2000년 이후 급증하기 시작한 국제결혼 재혼가정의 증가에 따라 나타난 집단으로, 첫째,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하여 본국의 자녀를 데려온 경우이다.

둘째,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

1)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탈북청소년, 다문화청소년, 중도입국청소년 등)을 지원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가는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이주배경청소년과 함께 만드는 공존과 통합의 다문화 한국 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인권 및 지역에 기반한 이주배경청소년 정책·통합지원, 청소년 다문화 역량 강화, 다문화 사회를 선도하는 청소년 정책 개발 및 제언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및 역량개발, 청소년의 다문화 감수성 제고,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을 주요과제로 하고 있다.

다 청소년기에 재입국한 학생의 경우이다. 셋째, 외국인 부모와 함께 동반 입국한 청소년의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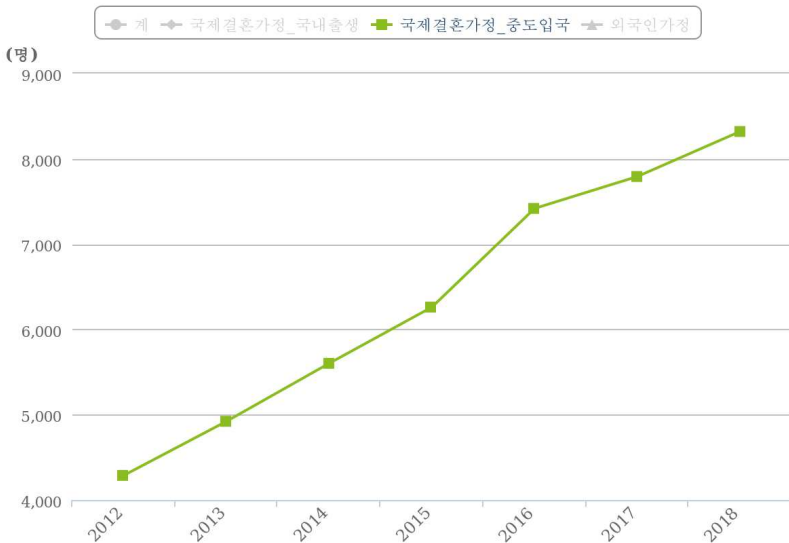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상술한 세 부류의 중도입국 자녀를 모두 연구대상에 포함시킨다. 중도입국자녀들의 입국경로를 살펴보면, 과반수(52.8%)가 부모와 살기를 원해서이지만, 본국에 돌봐줄 사람이 없거나(13.1%) 본인은 오기 싫었으나 부모가 원해서 입국한 경우(9.9%) 등 자발적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상황에 떠밀려 입국한 경우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전경숙·이의정 2012, 이은영·황혜원, 2016 재인용)또한 중도입국 자녀들은 부모의 재혼으로 한국에 오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새로운 가정환경에 대한 적응도 어려운데다가 낯선 나라에까지 오게 되어 친구도, 의지할 데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이 겪는 심리적인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한국이라는 사회에 대해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게 된다.(조옥이·박석준, 2011) 그들은 이와 같은 정체성 혼란과 문화적인 격차, 그리고 언어적인 문제로 한국에서의 초기 정착에 어려움을 겪게 되며 이는 학업부진으로까지 이어진다. 사회와의 소통에서 가장 기본적인 언어적응 문제는 향후 중도입국 학생들이 진로, 취직분야에서도 큰 장벽에 부딪치게 되며, 잠재된 사회적 문제로도 발전할 수 있다. 현재 중도입국 학생의 초기정착과 언어, 학업교육문제를 두고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표3 참조) 이에 따라 다문화예비학교²⁾는 한국어 미숙 및 문화차이로 인해 일반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도입국·외국인 학생들을 위해 한국어 및 한국 문화에 초점을 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원활한 공교육진입을 지원하고 중도탈락을 예방하려는 교육 목표를 갖고 노력 중이다(김선영, 2018). 하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

2) 다문화예비학교는 특히, 중도입국·외국인학생 등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한국문화 집중 교육을 제공하는 '다문화 예비학교(2017년 전국 179학급)'의 정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교육부, 2017. 9. 29 조간보도자료)

친 다양한 중도입국학생들을 직접 접하다보면 중도에 학업을 중단하거나 특히 니트(NEET)상태³⁾에 있는 중도입국 자녀는 32.9%로 국내 성장 자녀 10.9%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책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그림 1 참조).

최근 7년간 국제결혼가정 중도입국학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표 1, 2 참조).

<표 1 연도별 국제결혼가정_중도입국 학생 현황 14)>



3) 니트(NEET)란 학업이나 직업훈련 등 아무 것도 하는 일 없는 상태를 말한다. (여성가족부, 2016. 3. 9. 뉴스자료)

4) 국가교육통계 서비스센터 (2018. 4. 1 기준) <https://kess.kedi.re.kr/index>

<표 2 연도별 국제결혼가정_중도입국 학생 현황 2>

(단위: 명)

연도	중도입국 학생 수
2012	4,288
2013	4,922
2014	5,602
2015	6,261
2016	7,418
2017	7,792
2018	8,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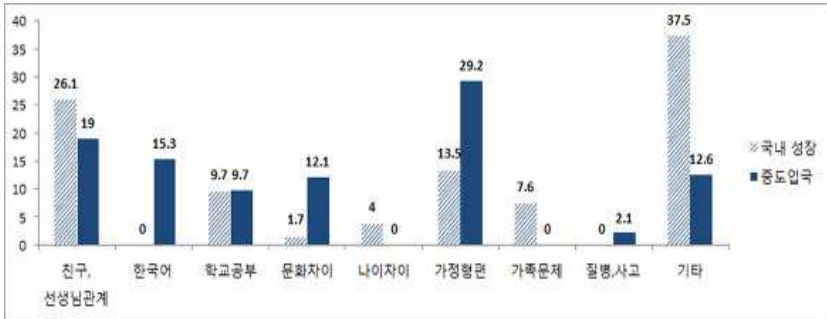
국가교육통계서비스센터의 2012년~2018년까지의 국제결혼가정의 중도입국 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증가하여 2012년 4,288명에서 2018년 8,320명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국제결혼 재혼여성들이 본국에서 생활하던 자녀를 한국으로 데려오으로써 중도입국자녀의 한국입국 비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이주배경 청소년 정책지원 현황5>

구분	내용
맞춤형 정보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배경청소년의 체류, 정착, 교육, 취업 진로, 생활 전반의 정보 안내 - Rainbow School 등 활동 프로그램 및 기관연계 지원 - 진로·진학지도, 심리·정서상담 연계 지원
레인보우스쿨 운영 (Rainbow Scho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서울·경기 및 16개 시·도 지역, 26개 기관에서 운영(직영 및 위탁운영) -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및 특기·적성, 사회문화, 심리프로그램 지원 - 전일제, 시간제(방과 후, 주말·야간) 운영 ※ 위탁운영 기관마다 프로그램 내용의 차이가 있음

<p>진로지원 프로그램 (무지개Job아라, 내-일을 잡아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서울·경기 5개소 운영(직영 및 위탁운영) - 진로지원이 필요한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진로탐색 및 설계, 직업체험 실시(무지개Job아라) - 사회진출 희망하는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직업실습 및 소양교육 등을 포함한 자격증 취득과정 운영(내-일을 잡아라) (예) 바리스타, 메이크업아티스트 등
<p>통합상담 및 가족연계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오프라인 상담 및 찾아가는 상담실시 - 맞춤형 상담 및 통역 상담 실시 -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마음돋보기’, ‘Job돋보기’ 실시
<p>역량강화 프로그램 (멘토링, 통합캠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배경청소년 심리·정서적 지지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멘토링 실시 - 이주배경청소년과 한국의 청소년들이 마음으로 통하는 “통·통·통” 통합캠프 실시
<p>다문화인식개선 프로그램 (다문화감수성 증진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초등학교 4~6학년 및 중학생 전 학년) 대상 프로그램 - 전문강사 파견을 통한 찾아가는 교육 지원
<p>상담 및 심리치유 프로젝트 다톡다톡(多talk茶talk)</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심리·정서지원 및 치료비 지원 사업
<p>친친무지개프로젝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배경청소년 중 배려계층 대상 교육비 지원, 봉사활동 실시

5)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sp/yth/sp_yth_f011.do



(단위: %)

<그림 1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중단 사유>

여성가족부의 통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가정형편, 친구·선생님 관계, 한국어문제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고 니트(NEET)상태에 처해 있는 중도입국 학생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자는 이중언어강사로서 참여관찰 방식으로 다문화 예비학교 한국어교육 수업에 참여하고, 다문화가정 자녀 및 중도입국학생이 갖는 문화적, 언어적 어려움을 살펴볼 것이다. 이 연구는 본 연구자가 이중언어강사로 소속되어 있는 전라남도에 소재한 A중학교의 다문화예비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는 중도입국 학생 7명의 언어적, 문화적 특징 및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관찰과 상담을 통해 중도입국 청소년의 초기적응에서 언어적응과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1.2 선행연구

중도입국 학생들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국가교육통계 서비스센터의 통계자료와 여성가족부의 정책지

6) 여성가족부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

원 현황을 살펴보고, 중도입국 학생의 정의는 무엇이며, 다문화에 비학교의 정규운영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국내의 중도입국 학생의 언어적응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이주 가정 자녀 정책수립에 있어 오랜 역사를 지닌 해외의 이주가정자녀 정책을 위한 사례분석을 통해 국내 중도입국 학생의 언어적응을 위한 방안마련과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자는 중도입국 학생의 언어적응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선행연구들을 심층 분석하였다.

안윤지(2012)의 연구에 따른 호주와 대만의 이민자를 위한 정책을 살펴본다. 호주의 다문화 교육정책은 사회통합을 강조하는 다문화주의를 기저로 인종차별 철폐와 인권, 문화권 존중을 중심으로 문화적 다양성이 정규 커리큘럼에 반영되어 학습될 수 있도록 다문화 교육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있으며, 새로운 이민자를 위한 ESL 프로그램 및 전문강사 지원도 이민자의 영어 수준에 맞춰서 제공됨으로써 학교교육 및 호주사회 적응에 실질적인 도움을 두고 있다(안윤지, 2012).

대만 타이페이현에서는 2008년 신주민교육지원과를 신설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교육에 대한 정부, 민간 및 공익단체가 신주민의 안정적인 대만생활 적응을 위하여 생활적응 및 언어문제를 생활적응 안내반, 문맹반, 성인교육전담반, 초등보습학교 등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특히 생활적응안내반이 신주민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체류한 기간에 따라 학생모집을 달리하고 있으며, 정식교육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부설 보습학교를 실시하며, 다문화 교육방식으로는 출석수업과 동시에 방송통신교육, 사이버강좌, 배우자학습, 이중언어학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김숙이, 2010: 안윤지, 2012, p33 재인용).

이민경·이수정(2013)은 이주가정자녀 정책 해외 사례 분석연구

에서 오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주가정 자녀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해온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를 고찰하여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들 국가들은 이주 가정 자녀들의 주류 사회로의 통합을 돕고, 이들이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방식으로 정책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의 이주가정 자녀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입국당시 언어능력을 측정하지도 않으며, 입국 후의 모든 과정은 개인의 역량에 달려있다. 미국에서는 이주가정 자녀들의 학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언어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는 교육부 내의 ‘영어 비숙련 아동을 위한 영어 습득, 언어 향상, 그리고 학업성취청은 영어 학습자와 이주 가정 자녀들이 영어를 원활히 구사하여 학업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영어를 제2언어로 다음 때문에 언어 지원이 필요한 이들 청소년들이 영어를 배우는 동안 자신의 모국어로 기타 과목을 들으면서 수업을 따라갈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이들 학생들의 학습 성공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근거한다.(이민경·이수정, 2013. p153 재인용)

캐나다는 다문화국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캐나다는 이주 가정 자녀들이 자신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자부심을 잃지 않으면서 동시에 캐나다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회문화적, 경제적 자원들을 갖출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 개개인의 처지와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 청소년들이 적극적 기획자로 참여하는 프로그램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김효신, 2009; 이민경·이수정, 2011 재인용).

상기 미국과 캐나다의 이주자녀 정책 중 언어 지원이 필요한 이주 청소년들이 자신의 모국어로 기타 과목을 들으면서 수업을 따라갈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은 현재 한국에 도입되지 않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적극적인 기획자로 참여하는 동기유발의 교육프로그램은 현재 다문화예비학교에서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현재 한국

의 중도입국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은 한국어 습득 위주이며, 모국어 사용의 연속성을 장려하거나 문화적 배경에 자부심을 잃지 않도록 독려하는 등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

권보근(2014)은 중도입국 청소년의 한국어 능력은 학교 적응 및 한국 사회 적응과 관계가 있어 초기의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제안하였다. 또는 연구에서 다문화 예비학교 과정은 정규 학교 적응에 다양한 방면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중도입국 학생 부모의 관심과 정보 능력이 학생들의 학교 적응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놓았고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위한 다문화 특별 학급의 운영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연구자는 현재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청소년기로 많이 진입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들이 학업을 마친 후 한국생활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권미경(2015)은 중도입국 청소년의 한국어학습 동기와 학업성취에 관한 질적 연구에서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동기부여와 상담, 진로지도를 전담하는 전문교사를 양성하는 체계도 국가적으로 필요하게 될 것이며, 전문교사들은 다양한 다문화의 특성 및 중도입국 청소년가정의 제반여건, 상담 등에 관한 교육을 통하여 양성되어야 한다고 했다.

테레사편(2017)은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과 정책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분석연구에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과 정책의 실태를 파악하고, 사회언어학적 관점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환경이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한국어를 습득하고자 하는 동기를 촉구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은 제2언어학습을 위한 사회적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중도입국 학생들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는 중도입국 학생들과 한국어 공동체사이의 사회적 통합 요소를 고려한 정책과 한국어를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상황에서

습득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상기 국내 선행연구들은 중도입국 학생의 한국초기정착 적응과 동기부여, 진로 지도를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안하고 있지만 언어적응의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학업부진에 따른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못하고 또한 중도입국자녀들이 언어적응과정에서 이중언어강사의 역할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질문

- (1) 중도입국 학생의 언어적응 과정에서의 또래와의 관계는 어떠하며, 학교생활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2) 중도입국 학생의 언어적응 과정에서의 교사와의 관계는 어떠하며, 이는 학교생활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3) 중도입국 학생의 한국생활 적응 과정에서의 부모와의 관계는 어떠하며, 이는 학교생활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2 연구 대상과 범위

본 연구는 다문화예비학교에서 현재 재학 중인 중도입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사례를 분석 연구하였다. 본 연구자는 2018년 4~6월, 2019년 4월~5월까지 매주 2회, 4시간씩 전라남도 소재 A중학교⁷⁾에

7) A중학교는 1990년 2월에 설립된 공립학교이며, 2018년 3월 기준 교사는 27명, 학생 수는 217명이며 현재 다문화학생은 국내출생 1명과 중도입국자녀 7명을 포함하여 총 8명이 재학 중이다. 다문화학생 재학비율은 2.76%이다.

서 이중언어강사로 활동하면서 중도입국 중학생들의 한국어 수업에 참여하여 직접 관찰하고, 학생들과의 면담, 한국어강사와 담당선생님과의 면담 등 형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 대상은 국제결혼 가정의 중도입국 중학생 5명과 외국인 가정 자녀 2명, 총 7명으로 구성하였다. 국내출신의 다문화가정 학생은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A중학교의 다문화학생 현황과 참여대상자의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표 4, 5 참조).

<표 4 A중학교 다문화 학생 현황8>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합계
국제결혼가정 자녀	국내출생			1	1
	중도입국			5	5
외국인가정 자녀		2			2
계		2		6	8

<표 5 중도입국 학생 참여대상자 기본사항>

번호	이름	성별	국적	학년	입국기간	기타
1	참여자1	여	베트남	중3	2년 6개월	
2	참여자2	여	베트남	중3	2년 6개월	
3	참여자3	여	브라질	중1	3개월	외국인 가정 자녀
4	참여자4	여	몽골	중3	2년	
5	참여자5	남	베트남	중3	2년	
6	참여자6	남	중국	중1	3개월	외국인 가정 자녀
7	참여자7	남	중국	중3	1년	

8) A중학교 다문화 학생 현황(2019. 3. 8 기준)

3. 사례 분석

A다문화예비학교에는 현재 7명의 중도입국 학생이 재학 중이며, 출신국가는 중국, 베트남, 몽골, 브라질이다. 중도입국 자녀들은 평소 원적학급에서 일반 학생들과 함께 수업하고 있으며, 한국어와 한국어 문화수업시간에는 별도로 마련된 다문화교실에서 계약직 한국어강사와 학교에서 특별 배정된 전담교사로부터 한국어 수업을 받고 있다. 학교장의 소개에 따르면 중도입국 자녀들을 위한 전담 교사의 배정은 그들의 언어적응과 학교생활 적응, 그리고 근거리에서 그들의 어려운 문제점을 즉각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전했다.

중도입국 자녀가 새롭게 다문화예비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중도입국 자녀들의 초기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이중언어강사를 채용하여 학생의 학교생활 및 언어적응을 돕는다. 이중언어강사는 심리 상담이나 가족 내 학부모와의 상담, 가정통신문의 전달 등 통역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학생과의 모국어소통을 통해 한국생활 초기 적응, 언어적응에서 부딪치는 어려움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어강사 혹은 전담교사와 협력하여 수업에 함께 참여하여 학생의 한국어 수업을 도우며, 기타 과목의 한국어 질문지를 모국어로 해석해주어 다른 교과목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본 연구자는 이중언어강사로서 교사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상담교사와 학생과의 소통지원, 한국어수업의 보조역할, 그리고 학생이 문화적인 부분에서 잘 적응하고 지속적으로 모국어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한국어를 배우는데 있어 한국어와 모국어의 음색의 차이, 미세한 발음의 차이를 모국어와 비교하여 발화연쇄 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학생에게 설명해줌으로써 정확한 한국어 발음을 구사할 수 있도록 중도입국 학생의 언어적응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한국어 학습을 이끌어주었다. 하지만 기타 언어권의 경우, 이중언

어강사의 학력이나 한국어수준, 그리고 전공분야의 차이에 따라 이중언어 역할을 감당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었다. 이중언어강사는 학교현장에서 중도 입국한 학생들의 맞춤형 교과 학습지도와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한국어를 처음 접하는 중도입국 학생들에게 이중언어강사는 그들과 비슷한 이주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동질감과 이중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존재자체만으로도 학생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을 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이명희, 2015)

A다문화예비중학교의 한국어 수업은 초급반(1~2학기 학생)과 중급반(2.5~3학기 학생)으로 나뉘어 수준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업은 주 14시간 진행되며, 한국어교사와 다문화전담교사가 중도입국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수업을 지도한다. 담당교사는 한국어 교육 과정을 통해 중도 입국학생들의 한국어 실력 향상, 교과 학습 적응력 향상, 학습 어휘 신장을 도모하고 능동적인 학습자로 원적학급의 조기 진입을 돕고, 일상생활 속의 어휘 지도를 통하여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용이하도록 돕는다.

그럼 다문화예비중학교의 중도입국 학생들은 언어적응 과정에서의 또래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는 어떠하며, 이는 학교생활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분석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3.1 언어적응과정에서의 또래와의 관계

언어적응 과정에서 중도입국학생의 또래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이는 학교생활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참여자들 간의 관계 형성을 살펴보면 베트남 출신의 참여자1, 브라질 출신의 참여자3, 참여자7 등 3명의 학생들은 다문화예비학

교 편입초기에 학교 내에서 언어소통의 문제로 또래 아이들과의 관계형성에서 소극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었다.

참여자1: 한국어가 너무 어려워요. 다문화실에 오면, 같은 베트남 친구와 대화할 수 있어서 좋아요. 같은 반 아이들과 어울리기 싫어요.

참여자3: 한국어가 너무 어려워요. 모국어인 포르투갈어를 사용할 수 없어서 너무 괴로워요. 저는 브라질로 다시 돌아갈 것 같아요.

참여자7은 학습이나 학교 내 생활에서 무기력함을 보였고 또래들과 소통을 단절하고 있었다. 귀가 후에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중국 내 친구들과 소통하고 있었다. 그는 중학교를 졸업하면 중국에 다시 돌아가서 프로그래머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갖고 있었다. 또래아이들과의 언어소통에서 심한 욕설을 사용하거나 혼잣말로 게임용어들을 되풀이하는 경향을 자주 보였다. 이러한 언어사용은 또래 아이들과의 소통관계에서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몽골 출신의 참여자4, 베트남 출신의 참여자5, 중국출신의 참여자6은 언어소통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또래 아이들과의 관계형성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다. 그들은 또래와의 관계형성에서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태도를 보이고, 예체능을 통한 또래아이들과의 소통에서 비언어적인 손짓, 몸짓을 많이 취하는 등 관계형성에서 협력하는 행동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참여자들로부터 공통되게 나타나는 점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낯설음과 언어적 장애로 인해 소극적이고, 정서적으로 위축이 되어 있었다. 이들은 언어소통의 어려움을 가장 큰 문제로 삼고 있었다. 초기 학교생활 적응에서 또래들과의 간단한 생활 언어는 특별반에서 진행되는 한국어 수업을 통해 가능했으나, 학업과 관련된 언어 능력 수준은 매우 낮아 기타 교과수업 내용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의 의사소통은 단순어휘를 반복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참여자4는 한국어와 몽골어의 유사성⁹⁾으로 언어적응이 비교적 빠른 편이었고 한국인에 가까운 발음을 구사하고 있었다. 그는 다른 학생들에 비해 스스로의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었다. 그는 일반 또래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열등감을 느끼지 않고 있었다.

참여자5는 밝은 성격에 축구를 통해 또래들과 잘 어울리고 있었다. 푸드테라피 수업에서 손수 만든 음식을 학적 학급의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등 의사소통에서 친구들과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참여자6은 또래에 비해 3살이 많다. 그는 또래와의 관계형성에서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태도를 보였다. 예체능을 통한 또래들과의 소통에서 비언어적인 손짓, 몸짓을 많이 취하는 편이었고 간단한 영어어휘를 사용하고 있었다.

참여자6: 친구들과 친해지기 위해 맛있는 간식도 나누고, 친구들이 수업시간에 학용품이 필요하다고 하면 빌려줘요.(연구자와 모국어로 소통)

참여자6은 학교생활 초기에 또래들과 소통하면서 배운 언어가 긍정적인 단어보다는 부정적인 단어 또는 비속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일반 또래아이들은 참여자6이 사용하는 비속어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고 이는 다툼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청소년기를 겪고 있는 일반 또래아이들은 참여자6이 한국어가 서툴다고 이해하기보다는 비속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욕설과 비속어의 빈번한 사용은 또래 아이들과 갈등을 빚는 원인으로 작용했고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때 한국어 사용이 자유

9) 한국어, 몽골어, 만주어는 기원적으로 알타이제어라는 동일 기원의 언어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알타이제어의 친족관계에 대한 연구와 무관하게 이들 언어의 문법적 유사성에 대해서는 여러 곳에서 지적되어 왔다. 특히 한국어, 몽골어, 만주어는 문법범주에서 단순히 유형론적 입장이나 차용의 결과로 볼 수 없는 동질성을 보여준다.(2009. Otgontuul, Togtokh. pl)

롭지 못한 참여자6은 습득한 모든 비속어와 욕설을 사용하여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다. 또한 참여자6은 다문화예비학교 특성상 현재 거주지가 학교와 멀리 떨어져 있어, 학교 밖에서 또래친구들과 어울릴 기회가 없어 한국어사용 환경에 노출될 기회가 제한적이었다. 이런 문제점은 다른 중도입국학생들에 비해 한국어실력향상에 저해요소가 되었다.

참여자6: 선생님은 저 장난이 심하다고 하시는데 언어소통이 안돼서 친구들과 빨리 친해지려면 함께 축구하고 장난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한국어를 몰라서 답답하고 걱정이 많아요. (연구자와 모국어로 소통. 대화중 중국어로 ‘愁死了’ (걱정이 태산이다)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었다.)

참여 중도입국 학생들의 또래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은 학교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이러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학습부진의 주요원인이 되었다. 주 14시간의 한국어수업만으로는 그들이 원적학급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이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있었다. 그들은 시험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었고 OMR 마킹지에 수험번호, 이름, 해당과목을 적는 것부터 어려움이 컸다. 한국의 전통을 배우는 문화수업 같은 경우, 이중언어강사가 모국어로 설명을 해주었음에도 언어장애를 겪는 그들에게 한국문화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언어적인 장벽은 또래들과의 관계,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양산하고, 또래들과의 관계의 어려움은 갈등을 빚는 문제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언어적응을 하는 과정에서 이중언어강사의 채용기간의 제한으로 학교에서 모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갈등과 초기 한국어를 배우는데 있어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기 어려워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교육프로그램이 한국어 습득에만 집중되어 있고,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은 학업에 흥미를 잃는 저해요소로도 작용했다. 따라서 이중언어강사의 확대와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장려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들의 동기유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심어주고, 또래와의 관계형성에서 오는 정서적인 안정은 한국생활의 정상적인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3.2. 언어적응과정에서의 교사와의 관계

참여자들은 원적학급에서보다 다문화교실에서 더 활기찬 모습을 보였다. 그들은 다문화강사, 전담교사와 이중언어강사는 자신들의 환경과, 말투 행동을 이해해주고, 문화적인 차이를 공유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상기 교사와 강사에 대한 의지도가 높았고, 선생님과 스스럼없이 장난치는 모습을 보였다. 이중언어강사와는 가정, 학교 내에서 부딪히는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참여자들은 학교 내에서 엄한 선생님과 잘 받아주는 선생님의 차이에 따라 확연히 다른 태도를 보였다. 엄한 선생님일수록 더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보였다.

참여자1, 참여자2는 수업내용에 집중하지 못하고 수업시간 내에서로 장난치거나 크게 소리 지르고, 자주 시계를 들여다보며 ‘아, 짜증나요. 하기 싫어요.’ 라는 말을 자주 반복사용 하였다. 다문화담당선생님과 대화에서 예의를 지키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하는 경향도 보였다.

참여자3은 포르투갈어 이중언어강사를 현재 채용하지 못하고 있어 언어적응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기초적인 단어를 활용한 의사소통만 가능했다.

참여자5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고급과정의 한국어 수업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그는 일부러 수업시간에 늦게 교실에 들어오거나 수업시간 내에 갑자기 교실 밖으로 뛰쳐나가는 등 행동을 보였다. 또는 교사에게 10분간만 잘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업관련 내용 외에는 교사와 친밀감을 형성하고 있었다.

참여자6은 언어소통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선생님이 한국어로 질문하면 손톱을 물어뜯는 행동을 보였다. 또한 언어소통에 있어 존칭어가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중국어의 특성으로 인해 그는 존댓말 사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선생님과의 간단한 언어소통에서도 반말을 사용하고 있었다. 존댓말 사용의 어려움으로 선생님과 간단한 언어소통에서도 반말을 사용하고 있었다.

참여자6: 상담실에서 놀고 있는 학생들이 저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상담실은 정신적으로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만 오는 곳 아닌가요? 저를 이상한 아이로 볼까 걱정돼요. 그리고 같은 반 친구들이 저한테만 소리 지르고 하는데 중국인이라고 무시하는 것 같아요.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학교에 가면 어떤 상황이든 저보고 참으라고 해요.

참여자1, 참여자2는 수업내용에 집중하지 못하고 수업시간 내에서 장난치거나 크게 소리 지르고, 다문화담당선생님과 대화에서 예의를 지키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하는 경향도 보였다.

관찰결과 참여자들은 일반학생들과는 다른 학교의 기본 규정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거나 정서적으로 위축되어 있거나 불안한 상태를 보였다. 또한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자기 통제력이 부족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언어적응에 대한 어려움과 학업에 대한 부담감 등 심리적인 스트레스에서 오는 행동들이다. 이런 행동들은 성인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기와 관찰을 종합해보면 언어적응 저해요소로 인해 중도입국 학생들은 학교의 기본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거나 정서적으로 위축되어 있거나 불안한 상태이다. 또한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자기 통제력이 부족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언어적응에 대한 어려움과 학업에 대한 부담감 등 심리적인 스트레스에서 오는 행동들이다. 이런 행동들은 성인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상담교사

를 비롯한 학교와 가정의 중도입국 학생들의 자존감결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한국사회에 잘 적응해 갈 수 있도록 더 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연구자가 한국어 강사와 협력수업에 참여하여 관찰한데 따르면 중도입국 학생들은 한국어를 학습하는데 있어 한국어와 모국어의 음성적 요소의 차이로 인해 음색의 차이, 미세한 발음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해 정확한 한국어 발음을 구사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중국출신의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밀받침 체계가 발달하지 않은 모국어의 영향으로 정확한 한국어 발음을 구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단어 퍼즐 맞추기, 받아쓰기와 같은 학습에서는 단어를 문장으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들은 언어간 문법적인 체계가 다름으로 인해 모국어로 그 의미를 생각하고 다시 한국어로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한국어를 습득하고 있었다. 또한 다문화 예비학교의 전담교사가 국어전공자가 아닌 기타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로 배정이 될 경우,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못하고, 어법체계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여 맹목적으로 단어 받아쓰기 교육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중국출신의 참여자6과 참여자7는 본 연구자와의 언어체계 간 대조방식의 참여 수업을 통해 한국어 학습에 대한 흥미와 의지를 보였고, 맹목적인 습득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태도를 나타냈다. 또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이중언어 강사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6: 선생님과 중국어로 대화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한국어 발음을 배우는데 훨씬 도움이 돼요. 중국어와 한국어의 어법차이를 이해하고 나니, 통문장도 쉽게 익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여자7: 한국어교재에 나오는 문장을 중국어로 해석해주세요. 한국어로는 설명을 들어도 그 뜻을 몰라요. 한국어 수업시간에 펭귄, 사자 등 단어퍼즐을 맞추고, 동요도 부르는데 실제 이런 단어를 사용할 데가 없어요. 생활회화나 교실언어를 더 많이 배우면 좋겠어요.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도입국 학생의 한국어 습득에 있어서의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최소화하려면 이중언어강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교사와의 소통을 돕고, 중도입국 학생을 위한 멘토링 지원의 일환으로 중도입국 청소년과 자격을 갖춘 이중언어강사를 멘토로 연결시켜줌으로써 지속적인 추적관리를 통해 단계별 문제점을 해결하고, 초기적응 단계에서 효율적인 지도를 진행함으로써 사회진출을 위한 사전준비를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

3.3. 언어적응과정에서의 가족과의 관계

그럼 중도입국학생의 한국생활 정착과정에서의 가족과의 관계는 어떠하며 이는 학교생활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중도입국 학생들은 새로운 가족구성 형성의 특성 때문에 빈번한 가정불화나 경제적인빈곤을 경험하기가 용이하고, 특히 10대 이후인 청소년기 후기에 입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자아 정체성 형성이라는 성장적 과제는 물론이고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 적응해야 하는 추가적인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이중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중도입국 학생들이 속한 환경 때문에 역량을 갖춘 바람직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많은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다 (장명선·송연숙, 2011).

가정환경요인 중 가정의 분위기, 부모의 양육태도, 가정문제, 부모-자녀간의 관계는 학습된 무력감에 영향을 미친다.(정수자,1995: 이은영·황혜원. 2016, p3 재인용) 중도입국 자녀의 경우 재혼가정 자녀가 많고, 이 과정에서 새롭게 구성된 가족과의 관계 형성 및 가족의 의미 등에 대한 혼란을 겪을 수 있다(정희정·김소연. 2014: 이은영·황혜원. 2016 p3 재인용).

참여관찰 결과 참여자3,4,5의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가정 내에서의 부모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었다.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적

극적인 태도, 특히 새아버지의 자녀교육에 대한 지지도는 자녀의 정서적인 안정과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언어 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와 반면에 참여자1,2,7의 세 가정은 자녀의 양육태도에 있어 소극적이거나 자녀교육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였다.

참여자3의 어머니는 브라질 출신으로 한국인 남편과 재혼하였다. 자녀가 학교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기 위해 무에타이 학원에 보내는 등 남편이 자녀교육에 대한 지지도가 컸다. 참여자3은 또래들과의 나이 차이와 내향적인 성향으로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은 겪고 있었지만 정서적으로는 안정적인 성향을 보였다.

참여자4의 어머니는 몽골출신으로 한국인 남편을 만나 재혼한 결혼이주여성이다. 그의 모는 한국에서의 사회적인 상호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어 자녀교육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자녀가 또래들과의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뒷받침이 되어주고 있었다. 가정의 양육태도는 그의 한국어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고 이는 더 노력할 수 있는 자발적인 동기부여가 되었다.

참여자5의 어머니는 베트남출신으로 한국인 남편을 만나 재혼한 결혼이주여성이다. 가정 분위기가 좋으며 새아버지가 자녀의 교육에 적극 관여함으로써 학교교사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며, 자녀와 함께 운동을 하거나 가정 내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소통의 폭을 넓혀가는 등 자녀와의 친밀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족과의 관계로 인해 참여자5는 학교에서 활동적이며, 집단 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중도입국 자녀들에 비해 한국어실력이 빨리 향상되고 있었다.

참여자1의 가정은 가정불화가 큰 편이고 경제적인 여건이 넉넉지 못한데다가 어머니는 데리고 온 딸을 학원에 보내고 싶어도 남편한테 쉽게 돈 얘기를 꺼내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과 베트남의 문화차이에서 오는 이질감으로 ‘우리 엄마는 한국인 엄마와 다르다’, ‘한국인 엄마들은 자녀가 귀가하면 간식도 챙겨

주는데 우리 엄마는 나를 일만 시킨다’ 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고 가사를 도맡아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는 자녀와의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하는 저해요소가 되었다.

참여자6의 부모는 중국인으로 취업으로 한국에 정착하게 되었다. 참여자6은 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고, 학교 교사와의 전화상담도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참여자6의 심리적성검가 결과 아주 양호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부모가 중국인으로서 중국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중국문화에 대한 방향성¹⁰⁾을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주문화화의 상호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의 자녀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사전정보가 부족했다. 또한 가정에서는 자녀와 모국어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어, 자녀의 언어능력 향상과 학업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었다.

참여자7의 가정은 경제적인 여건이 어렵고 가정불화가 크다. 새 아버지는 의도적으로 자녀의 양육을 회피하고 있었다. 게다가 어머니의 서툰 한국어로 자녀에게 언어적인 자극과, 자녀의 교육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었다. 자녀는 언어적응과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본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한국에 오게 되었다는 것

10) Berry(1997)는 문화적응이론에 있어서, 단일차원과 다차원 문화적응이론으로 구별됨을 인용하면서 단일차원 문화적응이론(Golden, 1995)은 문화적응을 이주 집단의 원문화 상실과 상실된 원문화가 이주문화로 대체되는 과정으로, 다차원 문화적응이론(Marin and Gamba, 1996)은 원문화에 대한 방향성(이주 집단이 원문화를 유지하거나 상실하는 정도)과 이주문화에 대한 방향성(이주문화를 거부하거나 학습한 정도)이 독립적으로 공존하는 과정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주민이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양상은 원문화의 정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를 말하며 ‘문화적 유지(cultural maintenance)’와 ‘접촉과 참여(contact & participation)’에 따라 통합유형(integration) 동화유형(assimilation) 분리유형(separation), 주변화유형(marginalization)으로 구분되며, 이것은 이주민에게 유형의 선택이 자유롭게 보장되고,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토착민들의 태도가 개방적이고 포용적일 때 통합이 가능하다. (최혜지, 2009: 안윤지, 2012, p13 재인용)

에 어머니와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었고 새아버지와도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가정 내에서 소외되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본 연구자와의 전화 상담에서 가정불화와 본인의 한국생활의 부적응문제로 아들의 언어학습이나 정서적인 문제에까지 관심을 돌릴 겨를이 없었다고 밝혔고, 이중언어강사가 투입되기 전 담임선생님이 참여자7의 부모와 학생의 학교적응에 관련하여 상담을 원했지만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일부러 통화를 피했다고 했다.

참여자들이 부모의 교육적 지원과 관심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언어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가족과의 관계는 자녀교육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한국어실력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모와의 관계가 부정적이거나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참여자의 언어적응은 차이를 보였고, 정서적인 안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진출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데도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연구자의 관찰 결과에 따르면 1년 전과 1년 뒤의 동일한 학생과의 상담에서 학생들의 한국에 거주한 기간이 길수록 중도입국 자녀의 한국어구사력은 향상되었고 학습에 대한 적응도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업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여전히 어렵다고 답했다. 또한 가족 간의 관계도 개선되어 있었다.

참여자4: 선생님, 저 작년에 비해 한국어 잘하죠! 저 매일 집에서 한국어 읽는 것을 핸드폰으로 녹음해서 CD랑 비교하면서 공부해요. 이젠 한국어가 재미있어요. 그런데 과학수업이랑 수학이랑 사회는 아직도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도 이젠 말이 통하니 학교생활이 재미있어요.

참여자7: 선생님, 이번 중간고사에서 100명중 99등 했어요. 영어시험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는데, 한국어로 된 질문을 이해하지 못해서 성적이 더 낮게 나왔어요. 이제부터라도 한국어를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작년부터 좀 더 열심히 공부할 걸 후회돼요. 이제 한국어가 좀 되니 새아버지랑도 의사소통이 돼서 작년보다 많이 친해지고 가족분위기도 훨씬

더 좋아졌어요, (연구자와 모국어로 소통)

상기에서 관찰한 바와 같이 한국에 온 외국출신 어머니가 한국의 교육 문화에 대해서 정보가 부족하여 자녀교육에 소홀해지고, 가족 간에 의사전달이 잘 되지 않음으로써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교육적 지원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새아버지의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무관심이나 방임적이고 의도적인 차원에서 교육적 지원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중도입국 자녀의 교육기회와 교육경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낳게 된다(류방란·오성배, 2012). 중도입국 청소년 부모의 한국어 수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정도, 학력수준이 자녀의 언어적응과 한국생활 정착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양육태도에서의 부모의 역할이 언어적응과, 학교생활과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언어획득 방식과 획득과정에서 부모의 신념과 태도가 자녀의 언어사용 형태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안윤지, 2011, 재인용).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이 더욱더 필요하다. 중도입국 자녀의 초기 한국생활적응과 언어적응을 돕기 위해 부모를 상대로 한 한국교육에 대한 인식, 부모의 역할 등 집중 교육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현재 정부나, 학교차원의 이주민의 안정적인 한국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다문화건강가족센터의 관계자의 소개에 따르면, 한국에 초기 정착하여 가족 내 구성원이 직접 관련부처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여 지원을 받거나, 학교 내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집중관리는 물론 사회와의 상호관계가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밝혔다.

4. 결론

이상으로 중도입국 학생의 언어적응 과정에서의 또래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첫째, 언어적응 과정에서의 또래와의 관계는 언어장벽이 학습부진의 주요 문제로 나타났다. 언어적인 장벽은 또래들과의 관계는 물론 학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관찰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즉 한국어의 어려움으로 학업성취도가 낮고 정서적으로 위축이 되어 있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교사와의 관계에서는 이중언어강사의 역할이 한국어를 습득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미친다는 점을 실제 수업과 관찰, 상담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앞서 국내 선행연구들은 중도입국 청소년의 한국 초기정착 적응과 동기부여, 진로 지도를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안하고 있지만 이중언어강사의 역할의 중요성과 그들의 학업부진에 따른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대안은 제시하고 못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관찰 연구 결과 이중언어강사의 필요성이 더 강조된다. 참여자들이 낱말카드나 고사성어를 이용한 한국어 학습시, 한국어의 뜻을 이중언어강사의 도움을 받아 모국어로 이해하고 암기하는 방법은 한국어 학습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중도입국 자녀들은 이중언어강사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언어강사는 한국어와 모국어의 음색의 차이, 미세한 발음의 차이, 혀의 위치 차이를 모국어와 비교하여 발화연쇄 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학생에게 설명해줌으로써 정확한 한국어 발음을 구사할 수 있도록 중도입국 학생의 언어적응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도와줄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중언어강사를 통한 모국어 사용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이중언어를 체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도입국 학생들의 동기유발은 물론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아직 초기 단

계의 이중언어강사 역할은 중도입국 학생들이 모국어를 유지하면서 한국어교육을 통해 한국의 학교생활 적응과 최소한의 교과학습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명희, 2016; 김현주, 2011 재인용)

셋째,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참여자 부모의 한국어수준과 한국의 교육문화에 대한 사전정보, 양육태도에 따라 자녀의 언어적응과, 학교생활에 상호작용을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지지도에 따라 정체성 확립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또래들과의 학교생활 적응에 차이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중도입국 학생의 부모와의 관계개선과 적극적인 양육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부모참여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대두된다.

넷째, 해외의 경우, 이민경·이수정(2013)연구에 따른 미국의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언어 지원 사례를 적극 검토하여 한국어를 배우는 동안 자신의 모국어로 기타 과목을 들으면서 수업을 따라갈 수 있도록 장려함으로써 자부심을 키워주고, 모국어 사용의 연속성을 장려하여 모국어 문화권에 대한 자부심을 잃지 않도록 독려하는 대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또한 안윤지(2012, 재인용)의 연구에 따른 대만의 선진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사이버강좌, 이중언어학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중도입국학생들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한국어습득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장점을 살려 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한국의 교육 현장에도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현재 한국은 이주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 다양한 분야의 이중언어 인재도 필요하다. 특히 한국의 의료관광통역, 상담통역, 법정통역을 망라한 커뮤니티통역 분야는 현재 걸음마단계이다. 다문화사회의 구성원 즉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청소년

년, 다문화자녀들의 이중언어 사용을 적극 장려하고 관련 지원정책을 펼쳐 이들이 커뮤니티통역 시장의 확대와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진로는 물론 결혼이주 여성들의 학력향상과 취업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분야의 후속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2017). 다문화학생 맞춤형 한국어 교육으로 의사소통 능력 키워요!: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개정 고시. 교육부 보도자료.
- 국가평생교육원중앙다문화교육센터(2018). 다문화학생 유형별 증가 추세. <https://nime.or.kr/?menuno=8>
- 김선영(2018). 중도입국 자녀를 위한 다문화예비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분석,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홍기(2015). 국내중도입국 자녀의 현황과 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권미경(2015). 중도입국 청소년의 한국어학습 동기와 학업성취에 관한 질적 연구, <새국어교육> 110호, 한국국어교육학회. 147쪽~181쪽.
- 권보근(2014). 중도입국 청소년의 다문화 예비학교와정규 학교에서의 적응 사례 연구, 경인교육대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류방란·오성배(2015). 중도입국 청소년의 교육기회와 적응실태, <한국교육개발원> 5권 1호, 한국다문화교육학회. 29쪽~50쪽.
- 먼리리(2015). 서울다문화학교에서 이중언어강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여성가족부 정책지원 내용(2019). http://www.mogef.go.kr/sp/yth/sp_yth_f011.do

- 조옥이 · 박석준(2011). 다문화가정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한국어문화 교육의 방안과 연구: 교육 사례 예시를 통한 문제 제기를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6권,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217쪽~238쪽.
- 안윤지(2011). 국제재혼가정 이주청소년들의 언어 문화적응교육에 대한 실태 탐색, 동아대학교 동북아 국제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노미(2014). 한·중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상호 인지평가를 통한 갈등관리 방안 연구: 한·중 대학생의 문화가치유형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연구> 22권 3호,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25쪽~51쪽.
- 이명희(2015). 이중언어강사의 역할에 대한 교사의 인식,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민정 · 이수정(2013). 이주 가정 자녀 정책 해외 사례분석: 방향성과 실제, <현대사회와 다문화> 3권 1호,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144쪽~174쪽.
- 이은영 · 황혜원(2016). 가족환경스트레스가 중도입국 자녀의 학습된 무력감에 미치는 영향: 자아정체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3권 4호. 한국청소년학회. 397쪽~423쪽.
- 장명선 · 송연숙(2012).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 현안과 방안,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사업 보고서.
- 테레사편(2017).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과 정책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권 19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891쪽~913쪽.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2018). 연도별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https://kess.kedi.re.kr>
- Otgontuul, Togtokh(2009). 한국어, 몽골어, 만주어 격어미 비교연구, 상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필자소개

성 명 : 김송철

소 속 : 부산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어번역학과

전자우편 : zhufu217@naver.com

투고일: 2019. 8. 5 / 심사일: 2019. 8. 7 / 심사완료일: 2019. 8. 17